

## 설교로서의 신명기의 수사학적 기법

전정진(성결대학교 구약학 교수)

### 논문초록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광야방랑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고별설교이다. 모세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출애굽 제1세대를 본받지 말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친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할 많은 규례와 법도가 나타나지만 신명기는 무미건조한 법정문서(legal document)가 아니라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설교로 선포된 율법(preached law)이다. 모세는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 모세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그의 청중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청중을 설득하고, 확신시키고,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설로서의 신명기, 구두(oral)로 선포된 설교로서의 신명기의 특성과 신명기에서 유난히 많이 사용된 동기유발절들을 분석함으로써 모세가 그의 설교에서 사용한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들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신명기, 고별설교, 장르, 수사학, 동기유발절

### 1. 서론

구약 연구에서 장르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구약성경의 장르에 대한 관심은 궁켈(H. Gunkel, 1862-1932)의 시편 양식비평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궁켈

(Gunkel, 1998)은 다양한 시편들을 문체와 내용 그리고 구조에서 공통의 특징을 나타내는 시편들을 동일한 종류의 장르에 속한다고 분류하였다(예, 찬양시, 공동체 탄원시, 개인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지혜시, 순례시 등). 궁켈 이후 장르 연구는 구약 전반에 확대되어 시편 연구 뿐 아니라 구약연구 전반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sup>1)</sup>

출애굽 이래 이스라엘의 광야방랑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신명기는 오경(창세기-신명기)을 마감하는 책인 동시에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역사서(여호수아-에스더)를 소개하는 책(신 34장; 수 1장 참조)으로 구약의 핵심 책들 중 하나이다.<sup>2)</sup>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는 율법적이고 제의적(cultic)이며 읽기 힘든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명기는 결코 지겹거나 재미없는 책이 아니다(전정진, 2002: 32-33). 한번 읽기 시작하면 읽는 이로 하여금 책 속으로 깊이 빠지도록 만드는 놀라운 책이다. 무엇보다도 신명기는 거의 대부분이 모세의 연설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책이다. 신명기는 서론과 결론 그리고 약간의 화자(narrator)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앞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연설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신명기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요단 동편에서 선포한 ‘말씀’이다.<sup>4)</sup> 신명기의 문학 장르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상세한 논의에 들어가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우리는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설교로 구분할 수 있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신명기의 장르를 모세의

- 
- 1) 장르의 기원, 정의, 그리고 성경 본문의 장르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하여는 T. Longman (1985)을 보라.
  - 2) 신명기는 시편, 이사야, 창세기와 함께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네 권의 책들 중 하나이다. 예수님은 신명기를 여러 차례 인용하였으며(마 4:4, 7, 10 등), 신명기의 신학은 로마서에서 바울의 논증의 많은 부분을 뒷받침한다. 신명기는 신약 27권 중 17권에서 80회 이상 인용되거나 암시되었다. 구약에서의 신명기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전정진 (2008: 11-22)을 보라.
  - 3) 이것은 신명기 1장 1-5절과 34장을 제외한 신명기의 거의 모든 문단이 인용 부호로 시작하는 영어 성경(특히 RSV)을 참조하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 4) 신명기 1:1의 처음 두 단어 **אלהינו** (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은 이 책의 히브리어 명칭으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
  - 5) 학자들은 전형적으로 신명기를 고대근동의 조약문서(Kline, 1963), 십계명의 해설(Kaufman, 1978/ 79; Braulik, 1985: 252-72; Walton, 1987: 213-25), 음악(Christensen, 1991: lx-lxii), 고별연설(Von Rad, 1966; Fretheim, 1983: 18) 등으로 간주하나, 본인은 고대근동의 조약문서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일련의 모세의 ‘고별설교’가 신명기의 장르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다고 본

고별설교로 보는 입장에서 신명기에서 사용한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설교로서의 신명기의 장르 이해

신명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해 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의 문턱에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어려서 경험하였던 새로운 세대에겐 권면하는 고별 설교로, 위대한 지도자의 유언과 같은 기능을 한다(신 1:1-5; 34장).<sup>6)</sup>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설교의 목적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보다 광의적으로는 앞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의 각각의 세대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는 그의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신 12:1)를 제시하며 강론하는 신명기 12-26장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신명기 12-26장은 무미건조하고 강압적인 율법들을 단순히 나열해 놓은 율법 모음집이 아니라,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설교로서 선포된 율법' (preached law)임을 주지하여야 한다(Von Rad, 1953: 15). 신명기에 나타나는 명령들은 권면과 함께 제시된다. 모세는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모세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그의 청중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 일으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sup>7)</sup>

신명기 12-26장에서 율법을 강론하기에 앞서, 모세는 청중/독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

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Chun (2000), 140-48을 보라.

6) 본 논문 II장의 앞부분은 전정진 (2002: 32-35)을 수정하여 요약하였다.

7) 예를 들면, 신명기는 청중/독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동기 유발절(motive clauses)을 사용한다. 이에 관하여는 McConville (1984: 10-20)을 보라. 모세가 사용한 다양한 방법과 수사학적 기법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어가서 올바른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신명기 4-11장에서(특히 4-6장에서) 그 기초를 다진다. 신명기는 먼저 율법이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임을 명백히 한다. 율법이 은혜의 틀을 전제로 주어졌음은 십계명이 열거되기 전에 구속의 사실을 언급하는 것에 잘 나타나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웨라”(신 5:6; 참조 출 20:2-3). 율법은 이방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은혜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나타내어야 할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래 광야방랑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왔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가 모압평지에서’(신 34:1 참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고별 설교를 한다. 신명기가 다름 아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설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것도 죽음을 앞두고 하는 유언과도 같은 간곡한 고별 설교임을 인식하게 될 때, 더 이상 신명기는 무미 건조하고 지루한 율법을 모아놓은 율법전서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는 율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정(法定) 문서가 아니라 신실한 순종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율법을 설교한 것이다. 렌차크(Lenchak, 1993: 3)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명기의 저자는 메시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심을 기울인다. 이 메시지는 사실에 대한 냉정한 보고가 아니라 긴박감(sense of urgency)을 가지고 제시되었다. 이 메시지는 각 개인의 양심과 지성 그리고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신명기는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명기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이제 들어갈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설득하고, 권면하는 설교이다.

신명기는 청중을 설득하고(persuade), 확신시키고(convince), 또 동기부여를 하는(motivate) 다양한 수사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전형적인 설교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제 신명기에서 사용하는 주요 수사기법들을 살펴보도록 한다.<sup>8)</sup>

### III. 연설(address)로서 신명기의 특징

#### 1. 2인칭 단수와 복수의 혼용

신명기의 특징들 중 하나는 청중을 2인칭 단수와 복수로 혼용하여 지칭하는 것이다.<sup>9)</sup> 이것은 오랫동안 학자들에 의해 논쟁이 되어왔다.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인칭변화가 신명기 내에 존재하는 여러 자료들(sources) 또는 편집층(redactional layers)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Minette de Tillesse, 1962). 예를 들면, 신명기 8장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인 1절 그리고 19절 하반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은 복수로 지칭되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모두 단수로 지칭되었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복수로 되어있는 절들(1, 19b-20절)이 단수로 되어 있는 8장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후대의 틀이라고 이해하였다(Clements, 1998: 355). 하지만 인칭의 단수와 복수의 변화는 문체(stylistic)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통일성과 단일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고대 근동문서에서 2인칭 단수와 복수의 빈번한 변화는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Baltzer, 1971: 33).<sup>10)</sup>

2인칭 단수와 복수의 변화에 근거한 신명기의 자료 구분은 몇몇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메이즈(Mayes, 1979: 36)는 그 예로 신명기 4장을 제시하며, 신명기 4장 1-40절에서 단수와 복수의 빈번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통일성(unity)을 주장한다. 메이즈(Mayes, 1979: 36)는 그 대표적인 예로 4장 19절을 제시한다: “또 그리하여 네 [단수]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히브리 성경은 단수 ‘너’ 로 되어있음]의 하나님 야웨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단수] 미혹하여[단수] 그것에 경배하며[단수] 삼키지 말라[복수].” 이스라엘 공동

8) Slater (1991)와 Lenchak (1993)는 수사학적 비평방법을 사용하여 각각 신명기 1-3장과 30장을 분석하였다. 또한 McConville (2002)과 Barker (2004)는 수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 신명기를 석의하였다.

9) 이것은 현대 영어 번역에서는 더 이상 감지되지 않는다(예를 들면 현대 영어에서는 ye/you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다).

10) 비록 신명기에서만 단수와 복수의 변화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변화는 또한 에스겔 21-23장과 레위기 19장에도 나타난다.

체를 단수로 지칭하는 양식이 신명기 담화에서 기본 형태(standard form)로 사용되었으며, 이스라엘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체로 간주하여 효과와 강조를 주기 위해 이스라엘을 복수로 지칭하며 이들 사이에 빈번히 변화가 일어난다고 메이즈(Mayes, 1979: 36)는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단수와 복수의 변화가 주로 문체에 관한 것(stylistic)이라고 옹호하는 학자들 중 로핑크(Lohfink, 1963: 239-58)는 이러한 수의 변화는 신명기의 권면(parenesis)단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sup>11)</sup> 청중을 복수로 지칭할 경우 이스라엘을 개개인의 집합체로 간주하여 말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청중을 단수로 지칭할 경우 이스라엘을 하나의 단일체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핑크(Lohfink, 1963: 30-31, 239-41; 244-46; 252-54)는 인칭의 빈번한 변화를 문체적 맥락(stylistic context)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지하여야만 할 사항은 연설 그 자체만이 아니라 연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구체적 부분이다. 수의 갑작스런 변화는 한 단어, 구절, 또는 문단을 강조하고 있다. 렌차크(Lenchak, 1993: 16)는 단수와 복수의 변화를 주는 목적은 효과와 강조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수의 변화는 담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며 동시에 청중에게 새로이 집중을 하게하는 역할을 한다.

## 2. 세대 융합

단수와 복수를 혼합하여 설교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 현재의 청중과 이들의 전 세대(즉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를 동일시하는 기법이다.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또는 ‘너희가 보았다’ 와 같은 표현(신 11:7; 29:2)은 청중들을 과거의 사건들 속의 이전 세대와 일체감을 갖도록 한다.

청중들로 하여금 과거 세대와 일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신명기는 역사적 회고를 하는 이 책의 내러티브 단락에서 1인칭 복수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정탐꾼 사건을 회상하는 1장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출애굽 세대는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11) 신명기에서 권면은 4-11장과 29-30장에 집중되어 나타나지만, 권면 부분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는 12-26장에도 나타난다.

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현재의 청중들을 마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웨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웨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신 1:26-28).

현재 청중들이 마치 직접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인 것처럼 정탐꾼 사건의 이야기가 전개된다(신 1:5-6 참조). 동일한 원리가 2장과 3장에서 시혼과 옥에 대해 승리한 이야기를 회상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난다.

세대 융합(generation conflation)의 장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정탐꾼 사건에서 죄를 지은 이전 세대와 현 청중들을 동일시함으로(신 1:35) 야웨를 순종하고 신뢰해야 하는 긴박성을 강조하며 또한 현 세대에게 강력한 경고의 기능을 수행한다.<sup>12)</sup> 둘째, 시혼과 옥과의 전쟁에서 거둔 과거의 승리에 현 청중들이 일체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신 2:26-3:11) 그 승리의 실체를 강조하며 나아가서 가나안에서 미래의 승리 또한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세대간의 융합과 동일한 특징이 특별히 시내 계시에도 나타나는데(신 4:9-13; 5:3; 29:15 참조) 이것은 모압평지에서 주어진 계시로서의 신명기 책 자체를 시내에서 주어진 본래의 율법 수여와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 3. 기억의 용법

‘기억하다’ (remember) 또는 ‘잊지 말라’ (do not forget)라는 동사는 신명기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 동사들은 세대들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 여러 차례 청중들은 과거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듣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건들은

12)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명기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그다지 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아니라 이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일들이다. 예를 들면, 4장에서 언급되는 사건은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들려진다. 따라서 기억의 주제 또한 신명기에서 사용하는 세대간의 융합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기여한다. 여기서 기억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회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과거가 기억될 때,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현재에 작용한다(Blair, 1961: 43). 이 기억의 주제는 보다 일반적인 권면의 한 부분을 담당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율법들을 순종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기억의 대상은 신명기 전체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억하다,’ ‘잊지 말라’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과 관련하여 신명기에 나타나는 기억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Blair, 1961: 45): 애굽에서의 종살이(신 16:12; 24:22); 애굽으로부터의 구원(5:15; 6:12; 7:18-19; 8:14; 15:15; 16:3; 24:18); 호렙 언약(4:9-13, 23); 야웨 그분 자신[과 그의 계명들](4:39-40; 6:6; 8:11, 14, 18, 19; 11:18; 26:13); 광야 경험(8:2, 14-16; 9:7; 24:9); 아말렉(25:17-19); 옛날(32:7).

#### 4. ‘오늘’의 용례

신명기에 60회 이상 나타나는 ‘오늘’ (today)이라는 단어는 긴박성을 나타내기 위해 신명기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수사학적 요소이다. 폰라드(Von Rad, 1966: 26)는 이 단어를 신명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표현으로 간주하며 “신명기 전체의 설교적 성격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직면한 취해야 할 결정에 주의를 집중 시킴으로 과거가 현재에서 현실화된다. ‘오늘’은 결단의 날(the day of decision)이며, 미래의 가능성 뿐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그 사건의 중요성이 모두 현재의 결정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호렙의 ‘너희’는 다름 아닌 오늘 모압의 ‘너희’와 동일시된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시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현현은 지나간 과거에 완료된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세대에게 현존하는 실체이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4장이다. 밀라(Millar and McConville, 1994: 44)는 “이스라엘 개개



인은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이래 매 단계마다 현존하였으며, 매 단계마다 내린 각각의 결정은 그 풍부한 전승에 의해 전수되었다” 라고 주장한다.

밀라(Millar and McConville, 1994: 45)는 계속해서 “과거의 순종을 묘사함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현재의 순종을 촉구하기 위하여” “그때에” (신 1:9, 16, 18; 2:34; 3:4, 8, 12, 18, 21, 23; 4:14; 5:5; 9:20; 10:1, 8)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특징들은 신명기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세대 간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신 1:39-40) 미래를 위해 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리고 현재 모임에서의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세대들을 융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세대 간의 융합은 신명기에서 미래의 새로운 각각의 세대에게 언약의 요구들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신명기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는 것은(예, 6:20-25; 11:19) 이 책 자체가 영속적인 유효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 IV. 구두로 선포된 신명기의 특징

비록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명기는 기록된 책이며 또한 이 책 자체가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였음’ 을 이 책의 끝 부분에 강조적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신 3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의 문체(style)와 양식(form)은 신명기가 구두로 선포된 말씀에서 유래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31장 11절에서 명백히 나타나는데,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후에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제사장에게 그것을 큰 소리로 읽도록 가르친다. 고대의 글들이 큰 소리로 읽혀지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다.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관습은 보다 후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신명기 자체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호렙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들은 오직 불만 보았을 뿐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신 4:12, 15, 33, 36; 5:22-27).

구두로 하는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은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들 차이들 중 하나가 구두로 전해진 말은 기록된 말보다 더욱 반복적이라는 것이다. 렌차크(Lenchak)는 신명기에서 “극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개인에게 호소하는 직접 화법과 반복 내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다양성(constant variety)은 이 책의 청각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라고 지적한다(Lenchak, 1993: 18).

### 1. 반복(repetition)

신명기에는 유사한 표현과 절(clauses)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반복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동일한 표현이 엄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에는 ‘땅’ 과 관련하여 많은 반복 구절들이 나타난다.<sup>13)</sup> 신명기에서 ‘땅’ 은 거의 예외 없이 관계대명사(~~그~~)절을 수반하여 나타난다. 신명기에서 땅은 “좋은,” “젓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이미 “주/야웨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주/야웨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맹세/약속하신” 또는 “야웨께서 기업으로 주신” 과 같은 수식구와 함께 제시된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도 좋고 번창하는 땅을 취하고자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며, 동시에 그 결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명령들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을 갖도록 한다. 이와 같이 모세가 땅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이스라엘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표현들을 사용한다.<sup>14)</sup>

이와 마찬가지로 신명기는 야웨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본 반응을 묘사하는 다양한 동사

13) 신명기의 주제는 “땅” 이다. 약속의 땅의 문턱에서 모세는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설교를 한다. 모세가 바라보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다(창 12:1-3; 15:7). 이 약속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은 이미 기업으로 소유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거나, 아니면 정복이 임박한 것으로 묘사된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선포하는 규례와 법도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그 땅에서 행하도록 주어졌다(신 6:1; 12:1 등).

14) 이와 유사하게 신명기는 율법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한다(계명, 규례, 법도, 명령, 법 등). 신명기에서 이 용어들은 다양한 순서와 조합을 이루어 나타난다.

를 사용한다. 야웨에게 반응할 것을 권면하는 핵심 동사들 등 중 하나가 ‘듣다’ 라는 동사이며(예, 신 4:1; 5:1; 6:3, 4; 9:1), 특히 이 동사가 ‘야웨의 음성을 들으라’ (4:30; 8:20; 9:23; 13:4, 18; 15:5; 26:14, 17; 27:10; 28:1, 2, 15 등)라고 표현되었을 경우 흔히 ‘주의하다’ 또는 ‘순종하다’ 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 외에도 ‘사랑하라,’ ‘섬기라,’ ‘두려워하라,’ ‘붙어있으라,’ ‘순종하라,’ ‘지키라’ 등의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주요 단어들의 반복을 사용한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들은 구두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 핵심 사항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 기법인 동시에 또한 표현을 다소 변화시킴으로 청중들을 지루하지 않게끔 하여준다.

## 2. 확장(expansion)

신명기가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방법은 오경의 다른 율법 법전과는 대조적으로 다루는 내용의 목록을 확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무당을 금지하는 단순한 법이 나타나지만, 신명기 18장 9-11절은 점이나 마술을 행하는 자들의 다양한 목록을 제시한다:

네 하나님 야웨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확장은 이 법을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즉 신명기의 법은 이 목록에 열거된 사항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목록은 점술의 일반적인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 여기 사용된 이러한 문체는 신명기의 구두적(oral) 특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지이다.

## 3. 문체(style)

신명기의 문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신명기 문체의 특징들 중 하나가 신명기에 나타나는 많은 문장들이 대체로 짧고 리듬이 있다는 것이다(예, 8:4; 12:4; 13:4[히, 5절]). 또한 신명기는 비교적 길고 단조로운 문장들을 흔히 비교적 짧은 관계대명사 절을 사용하여 특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예, 1:31에는 4개의 관계대명사절이 나타난다; 8:1 또한 참조). 1장 31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직역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광야에서 [관계대명사(וְאֵלֶּיךָ)] 절] 너희가 보았다 [관계대명사(וְאֵלֶּיךָ)] 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았다 [관계대명사(וְאֵלֶּיךָ)] 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모든 길에서 [관계대명사(וְאֵלֶּיךָ)] 절] 너희가 걸었다 너희가 이르기까지, 이곳까지.

결과적으로 신명기는 암송하기에 적합하다. 드라이버(Driver, 1902: lxxxvi-lxxxvii)는 신명기의 문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명기에서 수려하고 감동적인 히브리 문학의 새로운 웅변술이 소개된다. 이 웅변을 통해 저자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 대부분의 고전적인 역사적 내러티브의 저자들과는 달리, 신명기의 저자는 기복이 있는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저자 자신의 사고를 전개함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역사의 사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느끼게 하며 또한 웅변적인 힘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신명기를 읽으며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주로 저자가 다양한 양식과 표현을 하나로 통합하여 리드미컬한 흐름으로 구성하여 균형을 갖춘 구절들을 통하여 저자 자신의 생각을 확대하는 기술에 기인한다.<sup>15)</sup>

## V. 신명기에 사용된 동기유발절

신명기의 특징들 중의 하나가 동기유발절(motive clauses)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15) 드라이버(Driver, 1902: lxxxvii)는 자신이 주장한 신명기 문체의 특성을 입증하는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15-19, 32-36; 6:10-15; 7:17-19; 8:11-16; 11:2-7, 10-12; 12:5-7, 10-12; 13:6-11; 28:20-24.

신명기에 나타나는 동기유발절은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 또는 그렇게 해야 하는 동기 또는 목적을 제공한다. 이 절들은 때로는 과거에 호소함으로써, 때로는 미래의 약속에 호소함으로써 현재 요구되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10장 19절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이었다는 것을 회상시킴으로 이들을 사랑해야 할 동기를 제공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15장 10절에서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히 꾸어주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은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심으로 동기를 유발한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야웨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와 유사한 동기가 16장 15절에서 이웃과 노비 및 나그네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초막절 규례에도 제시되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야웨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야웨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야웨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신 16:14-15).

약속의 동기의 반대로 때때로 ‘... 하지 않도록’ (lest, 히브리어 לֵאסֵ)으로 시작되는 경고가 나타나기도 한다(예, 7:25; 8:12; 19:6; 20:5-8; 22:9; 25:3). 이와 같은 구절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을 경고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기능을 한다. 또 다른 율법들은 징벌을 함으로써 죄를 지은 공동체를 정화할 것이라는 개념에 의해 동기를 유발하기도 한다(13:6; 17:7; 19:13, 19; 21:9, 21; 22:21).<sup>16)</sup>

그 묘사에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신명기에는 12개의 ‘가증스러운’ 동기들이 나타나며, 각각의 구절들에는 ‘가증스러운’ 또는 ‘혐오스러운’ 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이 구절들에서 금지된 행위는 우상숭배 그리고 종교적 순결을 타협하고자 하는 행위

16) 그 외에도 신명기의 동기유발적이고 권면조의 구절들에 관하여는 Thompson (1974: 26-31) 참조.

들이다. 이 정죄된 행위는 명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의 풍속과 규례라고 빈번하게 언급된다.<sup>17)</sup>

신명기에 나타나는 동기절을 아래와 같이 윤리적, 아웨의 이스라엘 선택, 보상, 교육적 그리고 설명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윤리적(ethical) 동기

먼저 신명기에 나타나는 동기절은 인도주의적 또는 윤리적 범주의 동기절이다. 22장 8절에서 집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명령은 지붕에서 실수로 떨어져서 집주인에게 피 흘린 죄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동기와 함께 주어졌다. 그리고 25장 3절에서 죄인에게 가해지는 채찍의 수를 제한하는 명령은 그 형제의 품위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동기에 의해 주어졌다. 5장 14절의 안식일 법은 종들에게도 쉬을 갖도록 하는 인도주의적 배려에 그 동기를 두고 있다.<sup>18)</sup> 또한 21장 14절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된 여인을 아내로 삼은 후 남자가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 그 여인을 돈을 받고 팔지 말아야 할 이유로 윤리적 동기가 소개된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육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 2. 아웨의 이스라엘 선택(election) 동기

두 번째 동기절의 범주는 아웨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거룩하다는 의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가증스러운 것에 관한 구절들이 이 범

---

17) 아웨께서 가증스럽게 간주하는 행위 또는 사물들은 다음과 같다: 가나안 제사(7:25-26; 12:31; 13:12-15; 17:4; 20:18);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14:3); 흠이 있는 제물(17:1), 어린 아이 제물과 점술(18:9-12); 복장 도착증(服裝倒錯症, 22:5); 성전 창기(23:17-19); 이혼한 자와의 재결혼(24:4); 이중 저울과 도량(25:13-16); 우상을 만드는 것(27:15) 등.

18) 신 5:15은 출애굽 구속을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하는 동기를 제시하는 반면, 출 20:11은 하나님의 6일 창조 후 안식하신 것에서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하는 동기로 제시한다.

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14장의 음식법은 14장 2절(“너는 네 하나님 야웨의 성민이라 야웨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의 동기가 주어진 다음 제시된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제단과 우상들을 파괴하여야 할 이유 역시 야웨의 선택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야웨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야웨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5-6).

### 3. 보상(reward) 동기

세 번째 범주는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또는 혜택이 율법 또는 명령을 지켜야 할 동기를 제공한다.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보상은 복지(well-being)와 장수 그리고 행복을 의미하는 ‘유복한 생활’ (good life)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명령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 부모 공경(5:16); 피를 먹는 것 금지(12:25, 28); 법정에서의 공의(16:20); 살인자의 처벌(19:13); 어미 새를 놓아줌(22:7); 공정한 저울의 사용(25:15).

이스라엘이 동족에게 돈이나 식물 등을 꾸어주었을 경우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 역시 야웨께서 갚아주실 보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웨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신 23:19-20).

왕이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은 야웨께서 왕의 보좌를 그의 자손에게서 보존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그 동기를 두고 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웨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17:18-20)

또 다른 보상은 이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복을 보장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십일조를 바칠 때 “네 하나님 야웨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다(14:28-29). 이와 유사한 복이 히브리 종을 방면할 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으며(15:18),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을 남겨 놓을 때 주어졌다(24:19).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보상은 이스라엘이 야웨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또 다른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예, 8:1).

#### 4. 교육적(didactic) 동기

네 번째 범주는 교육적인 것이다. 그 한 예로 율법을 어긴 자에게 형벌을 집행함을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악을 행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은 징벌을 정당화 한다. 모세는 그의 설교에서 가족의 일원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이와 같은 가혹한 형벌은 다분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이 형벌을 집행할 동기를 제공한다: “그는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야웨에게서 너를 피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13:10-11).

완악하여 교정할 수 없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21:21)과 제사장이나 재판관을 멸시하는 자를 죽이라는 명령,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자에게 그가 행하려고 꾀하였던 그대로 되갚아주라는 명령(19:19-20)도 유사한 동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7:12-13).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그들을 살려두었을 경우 이스라엘이 이방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 행하지 않도록 하려는 교육적 동기가 그 배후에 깔려 있다:



오직 네 하나님 야웨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흠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야웨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웨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20:16-18).<sup>19)</sup>

교육적인 동기유발의 또 다른 예는 왕이 야웨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토라를 기록하여 왕의 곁에 두어 야웨 경외하기를 배우며 토라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17:18-19).

### 5. 설명적(explanatory)

마지막으로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는 절(clause)이 수반되지만 어떤 특별히 의미있는 동기유발을 하지 않는 법들이 있다. 예를 들면, 22장 22-24절과 25-27절에서 강간에 대한 형벌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강간의 위협에 처한 여인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소리를 쳤는지 아니면 잠잠하였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졌는지 아니면 들려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주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설명 of 또 다른 예는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전쟁 소환이 면제되는 자들의 목록과 면제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 20장에서 발견된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 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

19) 가나안 족속과 혼인 금지도 이와 유사하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웨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웨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7:3-4).

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20:5-8).

신명기에 이와 같이 풍부한 동기절이 나타나는 것은 오경의 다른 부분 그리고 특히 다른 고대 근동의 율법들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두드러진다. 이 차이점들은 신명기의 수사학적 성격을 강조적으로 보여준다. 신명기는 백성들에게 강요와 설득 그리고 확신을 불어넣어 주며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구두로 선포한 권면이다.

앞의 예에서 우리는 땅에 관한 다양한 수식어 구를 주지하였다. 이 수식어구도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신명기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땅은 아무 땅이 아니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그 땅의 좋음과 풍성함이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그 땅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뢰하기에 충분한 신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풍성한 땅이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의 성격, 즉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맹세하였다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야웨의 신실성을 신뢰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 기간 동안 야웨께서 행하신 과거의 이적에 호소함으로써 야웨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득시킨다.

## VI. 결론

신명기는 결코 단순한 명령과 규례들을 모아놓은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율법전서가 아니다. 신명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한 감동적인 고별설교이다. 설교는 단순히 그 명령을 나열하는 것, 즉 정보 제공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청중을 설득시키고 동기부여를 함으로 자발적으로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신명기는 다양한 수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과거 역사를 회상하며 야웨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킴으로 과거에 약속을 지키신 야웨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장차 이루실 것을 확신시키며 또한 신실하신 야웨는 그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청중에게 입증한다. 동시에 모세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생생하게 재현하며 이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약속에 땅에서 야웨께 순종할 것을 가르친다. 모세는 규례와 법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신명기 12-26장에서 이스라엘이 강압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야웨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한다. 모세는 그의 설교에서 청중을 2인칭 단수와 복수를 혼용하여 지칭함으로써 청중이 모세의 설교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며 또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융합함으로써 현 청중들이 마치 조상들의 죄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며 이제 약속의 땅의 문턱에서 결단을 촉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반복과 확장의 기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강조하며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신명기가 연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과 구두로 선포된 설교에서 사용하는 기법 그리고 다양한 동기부여절을 사용함으로써 청중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야웨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설교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전정진 (2002). “야웨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비신실함: 신명기 1장을 중심으로”. 『구약신학 저널』 7. 32-52.
- \_\_\_\_\_. (2008). “모세오경 및 구약에서의 신명기의 위치와 의의.”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 편집부 엮음.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11-22.
- Baltzer, K. (1971). *The Covenant Formul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rker, P. A. (2004), *The Triumph of grace in Deuteronomy: Faithless Israel, Faithful Yahweh in Deuteronomy*. Carlisle: Paternoster Press.
- Blair, E. P. (1961). “An Appeal to Remembrance: The Memory Motif in Deuteronomy.” *Interpretation* 15. 41-47.
- Braulik, G. (1985), “Die Abfolge der Gesetze in Deuteronomium 12-26 und der Decalog.” In *Das Deuteronomium: Entstehung, Gestalt und Botschaft*. Edited by N. Lohfink.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52-72.
- Christensen, D. L. (1991). *Deuteronomy*. Dallas: Word Books.
- Chun, J. J. (2000). *The Golden Calf Episode in Theological and Critical Perspectiv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stol.

- Clements, R. E. (1998). "The Book of Deuteronomy."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2. Nashville: Abingdon Press.
- Driver, S. R. (1902). *Deuteronomy*. Edinburgh: T & T Clark.
- Fretheim, T. E. (1983). *Deuteronomic History*. Nashville: Abingdon Press.
- Gunkel, H. (1998). *Introduction to Psalms: The Genre of the Religious Lyric of Israel*. Completed by J. Begrich and translated by J. D. Nogalski.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 Kaufman, S. A. (1978/79).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c Law." *Maarav* 1/2. 105-58.
- Kline, M. G. (1963).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Eerdmans.
- Lenchak, T. A. (1993). *'Choose Life!': A Rhetorical-Critical Investigation of Deuteronomy 28,69-30,20*.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 Lohfink, N. (1963). *Das Hauptgebot*.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 Longman, T. (1985). "Form Criticism, Recent Developments in Genre Theory, and the Evangelical."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7. 46-67.
- McConville, J. G. (1984). *Law and Theology in Deuteronomy*. Sheffield: JSOT Press,
- \_\_\_\_\_. (2002). *Deuteronomy*. Leicester: Apollos.
- Mayes, A. D. H. (1979).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 Millar, J. G. and McConville, J. G. (1994). *Time and Place in Deuteronomy*. JSOTSup 17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 Minette de Tillesse, G. (1962). "Sections 'tu' et Sections 'vous' dans le Deutéronome." *Vetus Testamentum* 12. 29-87.
- Rad, G. von. (1953). *Studies in Deuteronomy*. London: SCM.
- \_\_\_\_\_. (1966). *Deuteronomy*. London: SCM.
- Slater, S. (1991). *"I Have Set the Land Before You": A Study of the Rhetoric of Deuteronomy 1-3*.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 Thompson, J. A. (1974). *Deuteronomy*. London: Inter Varsity Press.
- Walton, J. H. (1987). "Deuteronomy: An Exposition of the Spirit of the Law." *Grace Theological Journal* 8. 213-25.

## Abstract

### Rhetorics of Deuteronomy as a Sermon

Jung-Jin Chun(Sungkyul University)

Deuteronomy is the farewell sermon of Moses to the people of Israel on the verge of their entrance to the promised land after their 40 years of wilderness wandering. Moses urges his audience, the Exodus second generation, to trust Yahweh and obey his statutes and ordinances unlike the first generation who did not.

Though many commandments, statutes and ordinances appear in Deuteronomy, it is not a legal document in a strict sense but a preached law spoken through the mouth of Moses. Moses does not force them to obey Yahweh's commandments, but uses various rhetorical techniques to persuade, convince and motivate his audien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euteronomy as an address and as spoken words, and also analyzing diverse motive clauses, we studied various rhetorical techniques employed in Moses' sermon.

Key words: Deuteronomy, farewell sermon, genre, rhetoric, motive clauses